

7월 전북 농수산물식품 수출 증가율 전국 1위

수출액 1억8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2.4% 증가

2018년 7월(누계) 전라북도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52.4% 증가한 1억 8700만 달러로 지난달에 이어 수출 증가율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지난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수출 증가율 52.4%는 전국 농수산물식품 수출 증가율(6% 증)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전국 9개 도부 중 수출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부류별로는 축산물(172.5% 증가)과 가

공농식품(170.7% 증)의 증가폭이 컸으며, 신선농산물은 양파(94213,000달러)의 대만 수출이 크게 늘어 전년 동기대비 20.7%가 상승했다.

축산물은 지난해 시로 중단되었던 닭고기(843만6,000달러) 베트남 수출 재개로 291.0%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 구제역으로 중단되었던 홍콩 쇠고기(38만4,000달러) 수출 또한 372.2%가 증가하여 향후 축산물 수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가공농식품은 對 중국 수출이 회복되면서 변류(2,769215,000달러, 347.8% 증)가 상승세를 주도하여 전년 동기 대비 170.7% 증가했다.

수산물은 마른김(5,091만9,000달러)의 일본 수출이 다소 감소했지만 태국 대만, 러시아 수출이 늘어 24.7%가 증가했고, 조미김(2,552만3,000달러)은 7.6% 감소로 주춤세를 보였으나, 두족류는 전북 농수산물식품 수출 1위와 3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수출액은 3,858만2,000달러로 5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른김의 수출 호조에 힘입은 태국이 4,674만 6,000달러(51.6% 증)로 전북도 농식품 수출국 1위를 차지했다.

조호일 도 농식품산업과장은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수출 여건이 어려워졌음에도 수출 증가율 전국 1위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 수출 증대를 위해 최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동남아를 비롯한 시장별 진출 전략을 수출 기업들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진성기자

전북도, 올해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결과 확정 발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2017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결과 심의 생산산업진흥원·군산의료원·여성교육문화센터 '가' 등급

전북도는 지난 24일 도내 15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라북도 경영평가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경영평가는 2개 유형별로 기관경영 전략 정책준수, 경영효율화, 고객만족도 등 7개 분야에 대해 55개 내외 세부지표를 평가한다.

특히, 올해 경영평가는 기관들의 경영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정책 준수지표를 신설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 임금피크제운영, 블라인드 채용 제도 도입 등 새정부의 과제에 적극 부응해 나갈수 있도록 했다.

평가 결과 가등급 3개소, 나등급 5개소, 다등급 5개소, 라등급 1개소, 마등급 1개소로 결정됐다.

가등급으로는 생산산업진흥원, 군산의료원, 여성교육문화센터, 나등급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신용보증재단, 인재육성재단, 남원의료원, 다등급은 전북개발공사, 테크노파크, 국제교류센터, 전북연구원, 문화관광재단, 라등급은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마등급은 예곡융합첨출연구원이었다.

/김진성 기자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공기업 출연기관은 설립목적에 기반한 공공적 책무와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이 담당하는 각 분야에서 도정 발전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고객만족도가 전년보다 상승해 출연기관에 대한 외부고객이 느끼는 친절도·업무처리 공정성 등이 향상됐다.

전북도에서는 경영평가결과를 기관 성과급 및 내년 기관장 연봉과 연계하고, 경영개선계획 수립 보고 등을 실시하여 경영성과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은 120%~0% 기관 성과급 규모는 130~70%로 차등 지급되며 기관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된다. 특히 라등급 이하 기관의 기관장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평가결과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수행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경영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11월중에 기관장이 경영평가위원회에 직접보고토록 하였다.

/김진성 기자



휴업에 조용한 교실

태풍의 영향에 따라 휴업한 학교가 많은 지난 24일 전주시 완산구 전주 동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없어 학교가 썰렁하다.

LX, 전북 대학생 진로체험 기회 제공 '스페셜 멘토링' 진행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북도내 대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행사를 지난 24일 진행했다.

LX는 공공기관-대학교 Job(L)멘토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LX와 함께하는 스페셜 멘토링 행사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학생들에게 LX의 역할 등을 알리고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50여명의 도내 대학생 멘티 그룹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LX 소개와 함께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의 블라인드 채용안내, 공사 10대 미래전략 콘텐츠 전시관과 LX홍보관 관람, 국토인턴네트워크(LIBS)견학, 지적측량 시연·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뉴시스

태풍 '솔릭' 2차 피해 예방 위한 응급복구체계 가동

전북도는 지난 24일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풍피해 응급복구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태풍피해 응급복구 추진반은 응급 복구 총괄반, 재난대응 지원반, 상황 관리반, 실무지원반 등 총 4개반 71명으로 구성되어 각 분야별로 시군·유관기관과 공조하여 피해발생지역의 응급복구를 추진 중에 있다.

2018년 8월 24일 11시 현재 건물 외

벽마감제 탈락(1동), 가로수 전도(5주) 등 7개 시군 29건의 피해상황이 접수되어 응급조치가 완료되었으며, 피해 조사 진행 중에 있으나 철저한 대비 결과 피해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한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를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병행하여, 빠른 시간내에 태풍피해 이전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보훈처에 먼저 부는 '女風' ... 4급 이상 승진 13명 중 8명 여성

女공무원 고공단 등 관리자 임용확대 정부정책 적극 반영 9급 출신 여성 부이사관 첫 임용, 지방관서 여성 2명 4급 승진

국가보훈처가 서기관 이상 관리자급 인사에서 여성공무원을 대거 발탁해 눈길을 끈다.

보훈처는 24일 3급 부이사관 3명과 4급 서기관 10명 등 총 13명의 관리자급 공무원을 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진 인사에서는 여성 공무원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3급 승진자 3명 중 1명이 여성공무원이고 4급 10명 중에는 무려 7명이나 여성이 포함됐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서기관으로 승진한 47명 중 여성 승진자가 8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주목할 만하다.

특히 보훈처 최초로 9급 공채 출신 여성부이사관이 탄생한 것은 물론 지방 보훈관서에서 근무한 여성 공무원 2명을 서기관으로 승진 임용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보훈처는 전체 1372명의 구성원 중 절반이 넘는 743명(54.2%)이 여성공무원으로 구성됐지만 그 동안 여성을 고위직으로 승진 발탁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4급 이상 관리직 99명 중 여성은 17명(17.2%)에 그쳤다. 20명의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어 관리자 승진 임용에 있어 여성이 소외됐다는 평가가 있었다.

2013년 이후 서기관 이상 여성 승진은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3명 미만에 그쳤고, 2014년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번 인사에 대해 보훈처는 여성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등 관리자 임용 확대라는 현 정부의 균형인사 정책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5개년도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여성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임용 목표제'와

'4급 이상 과장급 임용 목표제'를 전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다.

보훈처는 특별 승진계획에도 승진 기준을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보훈업무 발전에 공헌한 우수공무원'으로 하며, '여성공무원의 고공단 등 관리자 임용 확대 등 정부의 균형인사정책에 부합'토록 고려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9·7급 공채나 여성이라는 이유 또는 지방에서 장기간 근무했다는 이유로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인사에서 소외되는 일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만큼 평가받고 승진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활력 있는 보훈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송영무 "마린은 3단계 정밀분석 중... 기체결합 심증 있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경북 포항에서 추락한 해병대 소속 헬기 '마린' 사고와 관련해 "심증은 충분히 정밀 분석까지 끝난 다음에 데이터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린' 사고 원인이 기체 결합이라는 게 거의 사실적으로 확정되는 거 아닌가라는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송 장관은 "사고조사는 자료수집, 기초자료분석, 정밀분석, 사고요인 도출, 검증, 후속조치 등 6단계로 돼 있다"며 "지금은 3단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린' 사고와 관련해 일부 매체에서 기체 결합이라고 보도되고 있는데(사고 원인을) 예단할 우려가 있다"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홍보나 보도 조치를 잘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